

元老建築人懇談會

本協會主管으로 다음과 같이 建築界著名人士를 모시고 懇談會를 갖었다.

日時：1981年 2月 27日 午前11時

場所：本協會會議室

參 席

席

- 會長：具玗會
- 理事：朴瑀夏, 金正澈, 安箕泰
- 支部長：金枝泰
- 會員：李丞雨, 姜錫元, 宋基德, 金漢根, 姜泰運, 韓鍾彥, 李海星

元老建築士

- 張起仁, 韓昌鎭, 崔昌奎, 慎武賊,
- 朴春鳴, 嚴德紋, 金壽根

懇談事項: 大型工事 契約에 關한 豫算會計法 施行令 特例規程 施行에 따른 建築士業務 萎縮에 對할 對應策 및 汎建築界의 諸般問題



具 玗 會

- 建築學會理事(前)
- 本協會會長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不肖 本人이 會長에 就任하여 約 四個月余에 걸친 會務를 通하여 本人으로서는 熱心히 뛰었습니다. 마땅히 建築界의 最高 指導層에 계시고 元老이신 先生任을 일일히 찾아뵙고 人事드림이 道理이오나 會務에 쫓기다 보니 大端히 罪悚스 럽게 되었습니다.

이 點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建築士協會 發足以來 아마도 처음 있는 元老 建築家님들의 모임이 아닌가 生覺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全員 參席하여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當面된 建築士業務上 重大한 試鍊期에 處하였다고 生覺되어 高見을 듣고저 하였으며 이는 共同 關心事로서 建築士의 實情입니다.

最近에 와서 建築景氣의 不況은 많은 建築士會員의 生業을 危脅하고 있으며 大部分의 會員들이 事務室문을 달아야 하는 切迫한 狀況에 處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實情입니다. 이러한 問題等을 解掃하려면 于先 全建築人이 團 合된 意知와 和合이 必要하다고 보겠으며 이를 打開

하려면 이나라 建築界의 重鎭이신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衆智가 있어야 하겠기에 猥獘되히 이자리 에 모셨습니다.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慎 武 賊

- 建築學會會長(前)
- (株)서한建築代表

具會長께서 會長 就任后 많은 일 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山積돼 있습니다. 奮鬪를 벌며

첫째, 建設部의 建築分野管掌部 署가 建築界 出身이 아닌 土木關 係出身이 管掌하고있어 建築3 團體가 累次의 是正을 促求했으나

아직도 未決狀態이며 根本的인 觀 不在라는 不美스런 結果를 招來했다고 生覺합니다.

둘째, 財務部令으로 通過된 本令은 建築士協會 및 建築有関團體와 많은 建築人들과 協議도 없이 預算會計로 建築을 다룬다는 點에 問題性이 있으며 猝地에 通過된 經緯에도 우리 建築人은 깊히 自省할 必要가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 建築人이 不意의 一擊을 當한 契機가 되지 않았나 生覺됩니다.

셋째, 이 問題는 우리 建築文化發展의 沮害要素로 써 建築3 團體와 建築人들이 充分히 熟識하여 于先 建築部分에서 必要하고 時急한 事項만을 拔萃하여 政府에 建議하고 漸進的으로 解決策을 摸索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爲해서 더욱 建築廳 또는 住

宅廳의 必要性이 強調되는 것입니다.



韓 昌 鎭
●本 協會會長(前)
●한정建築代表

建築에 從事하는 建築士(專問人)에게 事前에 一言事句의 予告나 協議가 없었다는데에 問題가 있습니다. 于先 이 問題의 當爲性부터 生 覺해 봐야 하겠읍니다.

大型化 된다면 있을법한 일이지 만 그러나 設計하는 立場에서 보 면 當하고 있는 實情이며 나아가

外國技術者까지 迎入시킬 憂慮가 있어 이런것을 無 條件 反對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의 零細性도 脫皮하 고 技術開發을 爲해 傍觀해서는 안되겠읍니다.

問題點을 要約하면

- ① 建築이란 學門의 現實과 將來의 傳統을 理解하고 進報의인 것이 政府次元에서 지속되고 계승되는 사항 으로 먼저 말씀하신대로 建築分野를 專担하는 獨立 部處인 建築廳의 新設이 絶對 必要하다는 點입니다.
- ② 長期的인 眠目으로 建築士라는 學問的 地位를 認識 토록 하고 全建築人이 欣然一體가 되어 打開해 나 가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도 對內的인 諸般問題點을 是 正하고 眞摯하게 恒常 研究하는 姿勢를 갖어야 되리 라고 生覺합니다. //



張 起 仁
●本 協會會長(前)
●삼성建築代表

韓國의 建築技術이 巴야호로 飛 躍의인 發展過程에 있다고 봅니다 現實的으로 巴아 猝地에 施行된 일이 充分한 研究와 對策 없이 너무 速斷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某 政府傘下企業의 例를 들면 根源이 確立되어있지않고 弊端

도 많은 經緯說明…… 省略

또한 關係部處에서 하는 일이 앞·뒤없이 行하여 지는 事例도 없지 않으며, 特히 建築技術開發에 對해서 關係機關에서, 勿論 予算上의 隘路는 있겠읍니 다마는 充分한 開發費를 投資하고 政策的인 積極支 援이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疎忽히 했기 때 문에 有關係機關에 對하여 協助해준 일이 하나도 없다 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입니다. 그 解決策을 要約하면,

- ① 關係部處에 建設部署라곤 보기 힘듭니다. 故로 이 問題가 問題惹起의 重要原因입니다.
- ② 大型이 妥當하다면 小型도 妥當하다는 論理가 成 立됩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建築技術이 제대로 開發 될수 있는 냐를 生覺해 볼 일입니다.
- ③ 建築人의 실땅이 어디인지 모르겠읍니다. 좀더 冷 徹히 判斷하고 建築人의 矜持와 意慾을 갖고 韓國建 築文化向上의 主役이 될 契機를 이 機會에 마련하여 야 되겠다고 生覺합니다. //



嚴 德 紋
●建築家協會會長(前)
●(株)임이建築代表

이런 問題를 事前에 建築 士協會와 意見調整이 있었는지요. 이는 建築不在입니다. 나름대로 언 져나는 “建築聯合會” 實現의 꿈을 가진바 있었읍니다.

韓國의 建築問題에 關하여 綜合 的인 對政府建議도 生覺해 보았읍 니다. U.I.A會議에서도 討論된바 있드시 國家發展의 母體가 人類的인 次元에서 優先 建築分野의 發達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會議主題에 說 明한바도 있었읍니다.

*問題解決의 重點을 要約하면

- ① 世界的인 建築思潮의 흐름으로 巴아 이러한 重大 問題가 나왔다는것은 이에 對한 挑戰이요 逆潮 라고 看做됩니다.
- ② 建築界의 흐름을 啓蒙 認識시켜주워야하며 前記 와 같은 問題는 建築交化를 鈍化시키는 要因이 된 다고 봅니다.
- ③ 建築3團體와 全建築人이 參與하여 世界建築思潮 의 흐름을 關係機關에 周知시킬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 ④ 建築은 人間尊重이 基調가 되어야 하는데 工學的 으로만 生覺지말고 政府에서는 우리를 後援하고 啓 導 育成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그와같은 門題가 惹 起되었다는것은 참으로 遺憾千萬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自衛策을 講究하여야 하겠기에 이를 言論 機關을 통하여 再認識토록啓業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崔 昌 奎
●建築家協會會長(前)
●新進建築代表

이는 財務部에서 一部公務員의 創意(?)를 받아들려서 이런 問題가 惹起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處事가 “建築不在”의 根本原 因이며 建築을 輕視하는 所致라 生覺됩니다. 根本的으로 이러한 可 變幅이 넓은 法을 制定할때에는 建設部와 協議없이 이루어졌겠읍 니까. 關係法令이 財務部令이란것이 어떻게 建築을 이렇게 默殺시킬 수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이 問題와는 달리 前에 3團體 聯合會 問題 도 掌論된바 있으나 契機未熟으로 아직 그 實現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一般的인 概念과는 달리 建設部의 意圖는 여러가지 複合的인 諸般要因때문인 것으로 生覺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正當한 大義明分을 갖고 諸般資料 를 綿密히 檢討分析해서 關係機關에 建設的인 建議 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生覺한 解決策의 要點은,
① 3團體 共同으로 심포지움을 가져 거기서 얻어지 는 結論을 言論에 公開하여 有關係機關을 認識토록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② 建築士誌는 “建築文化의 危機”라는 題号로 特輯을 準備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朴 春 鳴
● 建築家協會理事(前)
● (株) 朴春鳴建築代表

우리 建築政策은 現在 日本의 나쁜點만을 模倣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特히 法規面에서 그렇고 人的 構成이나 資質面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先進國과의 實質的인 文化交流나 情報交換이 아쉽고 어떠한 問題의 根幹을 송두리채 휘 흔들여는 習性이 問題입니다. 建築人의 福祉를 圖謀하고 建築文化의 暢達를 主導해야 할 主務官廳의 建築庁의 不在로 “建築不在”라는 不名譽스러운 樣相이 派生되지 않았나 生覺됩니다.

官署나 企業體나 다같이 人的 構成이 重要한데 올바른 思考判斷과 將來性이 없는 臨時 彌縫策에만 汲汲하는 社會風潮가 先改善되어야 하겠습니다.//////



金 壽 根
● 建築家協會會長(前)
● (株) 공간사 代表

우리 建築關係者들이 現在 어떠한 時点에 있는가를 깊이 生覺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只今 우리는 建築歷史上 最大의 危機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教育制度부터 建築에 關係되는.. 法 하는 데 이와같은 制度上의 問題點이 建築文化向上의 沮害要因이 되었고 建築士 業務를 萎縮시켰다고 生覺되며 無條件 엔지니어링만을 尊重하는 時代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生覺해 봅니다.

問題解決策의 要点은

① 建築界의 危機를 克服하기 爲하여 하이브리” 한 “캠페인”을 벌일 時点에 있다는 것을 自覺하여야 되겠습니다.

② 教育問題부터 모든 制度設定에 이르기까지 우리 建築人이 絶對 參與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③ 우리 建築文化는 우리 손으로 繼承發展시켜야 하며 關係法規의 改廢 캠페인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建築文化의 危機란 題下의 廣範圍한 캠페인 및 言論을 통한 우리의 失地回復을 圖謀하고 우리가 이나라 建築文化暢達의 旗手임을 闡明하고 建築文化의 危機를 克服하는데 總力을 集中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外國技術의 導入이나 外國技術者의 迎入을 無條件 反對할 것이 아니라 嚴密히 檢討分析해서 正確한 取捨選擇이 있어야 하고 그들과 正正當當히 技術對決을 해서 우리 建築人力의 豐饒와 技術의 優位性을 誇示하여 그들은 勿論 關係當局에도 覺醒을 促求하는 促進劑가 되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李 丞 雨
● 建築家協會副會長
● (株) 綜合建設代表

建築廳의 新設問題는 數次 學論하여 建議했으나 政府予算上 不可能하다는 回示가 있었음을 報告드립니다. 發端은 턴키베이스에 依한 海外境遇 說明... 省略, 土建會社나 끼고 建築土業을 해야 하는 悲慘한 現實을 우리는 慨嘆치 않을 수 없습니다.

全 建築人의 團合된 힘을 誇示할 때가 온것이라고 判斷하며 早速한 時日內에 關係部處에서 建築學과 建築人의 人類社會에 對한 寄與度가 얼마나 至大하고 絶對的인가를 再認識토록 해야 할때라고 生覺합니다.//////



宋 基 德
● 本 協會理事(前)
● 正일엔지니어링代表

某 長官 在職時에 “사우디” 用役 問題를 같이 論議한 事實이 있는데 技術用役會社를 키워야 하겠다는 것을 地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모두 是認하는 印象을 받았는데 建築士 協會에서 그에 對한 適切한 代案이 없었기에 이런 問題가 發

生되었다고 봅니다. 當時에도 常設機構로 “턴키베이스”가 잘 될것이나 等으로 論難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모두가 힘을 合하여 果敢히 對処해나가야 하겠습니다.//////



李 海 星
● 國防部技術次長(前)
● (株) 이 建築代表

앞으로 이런 狀況이라면 建設會社에 外國사람이 들어올 可能性이 濃厚하므로 우리는 이들과 對等한 立場에서 研究開發해야 하는데 關係 當局은 이에 對한 與件 造成과 政策의인 뒷받침을 果敢히 斷行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이것이 —

部 企業의 資料에 依하여 規程이 成立된 것으로서, 早速한 時日內에 是正될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姜 錫 元
● Agence Arch & URBAN 理事(前)
● Group KA 代表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問題로써 그 制定 動機야 어떻든 많은 問題點을 內句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建築文化의 危機라는 點에서 積極的인 캠페인이 絶對 必要하다고 보여어디까지나 韓國 임으로 外國과는 다르다는 問題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國內問題임으로 지나치게 外國技術이나 人力의 導

入에만 汲汲하지 말고 우리 技術의 開發策과 人力養成에 全力投球해야 할 때라고 生覺합니다.//////



金正澈
● 建築家協會理事(前)
● 本協會理事

이런 問題는 拙速보다는 長期的으로 緻密한 計劃을세워 解決策을 講究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엄청난일이며 政府次元에서 建築이란 學文을 理解하지 못하는 結果에서 온것이라 判斷됩니다.

1. 大型工事의 턴키베이스 入札, 特殊工事의 代案入札 등은 外國에서 이미 施行中인. 어떤 面에서는 經濟的이고 合理的인 制度라고 看做되나 이의 國內導入은 諸般國內實情으로 보아 아직 時期尚早라고 生覺합니다.

2. 이 規程의 効率성과 適用範圍는 現在 우리 建築界의 風土나 水準으로 볼때 剛一의 執行(土木이나 建築 創作을 不問)은 絶對 再考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特히 評價의 技術不足 建設會社의 脆弱性 및 不利益 등이 그 規程이 期待하는 效果에 違背될 것입니다.

3. 建築士協會는 이런 問題에 能動的으로 対処하여 現實的으로 研究檢討하여 1次的으로 特例規程이 뜻하는 目的을 達成키위한 對象分野의 分類(長短点分析)로 不當性を 指摘除外시켜 建築文化의 特性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4. 2次的으로는 그 特例規程의 全面改正 또는 廢止까지도 論理的으로 說得하는 作業을 長期的으로 推進하며 建築界가 一致 團合하여 對社会的 캠페인을 展開해야 할 것입니다.//////

이 規程은 1975年度에 制定된것인데 1977年, 1978年 그리고 1980年度에 다시 改正公布된것으로 生覺됩니다(限度額 달라짐)

이 規程의 施行은 全建築人의 死活問題와도 直結되며 建築文化 暢達의 沮害要因으로 看做됨으로 絶對로 傍觀할수없는 일입니다.



金枝泰
● 建築家協會理事(前)
● 서울市 支部長

皮相的이긴하나 이 規程의 施行動機가 經費節約과 工期短縮을 勘案한것으로 觀察되는데 結果는 그와 反對로 絶對 高級專門職種인 建築士의 活動領域을 縮少시켰고 나아가 過多한 競爭을 招來하였으며 零細業者의 倒産을 促進하는 惡循環이 派生되리라고 生覺합니다. 더욱이 現 國內建設會社의 規模나 能力으로 보아 到底히 勘當할수없음에도 不拘하고 이와같은

衝擊波가 큰 規程의 改正에는 當局者의 좀더 깊은 配麗가 必要했으며 우리 建築人들도 源泉的으로 이를 防止하지 못한 責任을 痛感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奮然 蹶起해서 關係要路에 建議하여 是正을 促求해야 합니다.//////



韓鍾彦
● 建築學會理事(前)
● 金星建築代表

이미 公布施行中이라 이 規程의 廢止는 困難하니 이 規程의 長短点과 우리 建築人에게 미치는 利害得失面을 緻密하게 研究 分析하여 漸進的인 改廢運動을 展開해야 하며, 當場 時急하다고 生覺되는 것은 이 規程의 適用範圍를 極限시켜(아파트, 프랜트) 많은 建築人에게 주는 被害를 極少化하자는 것

입니다. 寡聞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一部 特定 建設業體(아파트 2~3 業體)에서 事業上 便宜을 勘案하여 이 規程의 制定에 作用한것같이 生覺되는데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면 一部 特定業體에 特惠를 주는 政策은 앞으로 어느 分野이든 容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規程이 存続하는限 우리 建築界는 暗膽할것이며 建築文化向上에도 莫大한 影響이 미칠것으로 生覺되기에 그의 沮止策으로,

① 優先 우리의 零細性부터 脫皮해야 하겠습니다.
② 諸般國內 建築界實情을 正確히 把握하여 當面問題를 適時에 政策에 反映되도록 政府에 建議해야 하겠습니다.
③ 建築士의 國益에 對한 寄與도와 存在價值를 認識시키고 우리도 이에 묻지 않게 恒時 自我批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具玠會 會長 : (끝맺음)
여러분 長時間 手苦 많으셨습니다.
오늘 論議된 事項을 綜合하면, 今般 大型工事 契約에 關한 予算會計法 施行令 特例規程(1980. 11. 24 大統領令 10,078号) 施行에 對하여 大小 建築物을 莫論하고 “建築不在”라는 現實을 勘案 이에 對한 對策으로 모든 建築人이 奮起하여 效果의이고 持續的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이와 併行하여 指導層 建築人들은 有関機關과 協議하여 是正을 促求토록 하고 建築 3 團體가 主管하여 “심포지움”을 開催하고 特히 建築士誌를 통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論議가 되었읍니다.

本人은, 晩時之嘆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元老建築士任들의 高見과 協助를 얻게된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生覺하는 同時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이만 懇談會를 마치고겠습니다.
感謝합니다.//////